

# 간·폐디스토마가 쾨르 쾨다



■ 劉載乙

1874년 및 1879년에 각각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가 사람들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600년대에 肺葉에 기생하여 객혈을 일으키는 肺蟲이 있음이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가 풍토병으로 만연되어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채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 간디스토마와 폐디

스토마가 얼마나 치치하기 곤란한지 이것만 보아도 알만하다.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는 민물고기나, 민물가재등을 날로 먹을때 사람에게 감염되어 간디스토마는 肝에서, 폐디스토마는 肺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 디스토마들은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꼭 '박멸해야할 기생충'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디스토마 감염 환자는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

는 있으나 약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나 하천이 있고 민물고기가 있는 곳이면 간디스토마의 감염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낙동강 하류 인접지역은 농후 감염지역으로 유명하여 慶尙南道 金海郡 駕洛面은 세계에서도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생활양식의 특징에 의해 간디스토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생충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그동안 여러선배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10여년전에 비하여 현재의 기생충 감염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간디스토마에 대한 관리는 다른 기생충에 비하여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온 실정이고 페디스토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특히 디스토마에 대한 적당한 치료약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 기생충의 大宗을 이루고 큰 문제가 되었던 회충, 십이지장충 등에 대하여는 역사적인 산토닌(Santonin) 해인초등에서 부터 핵실레졸치놀(Hexylresorcinol), 피페라진(Piperazine) 메벤다졸(Medendazole), 피란텔(Pyrantel) 등 많은 구충제를 거치면서 꽤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에

대해서는 약효가 뚜렷히 인정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없어서 능동적인 관리를 못 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의 치료제 발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간, 페디스토마의 치료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좋은 구충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면 우선 약효가 우수해야 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목적하는 기생충에 대하여 뚜렷하고 신속한 효과를 가진 약이 좋은 약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가지 기생충에 동시에 작용하는 소위 “광범위 구충제”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 아무리 약효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하면 약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는 약의 수용성(受容性), 안전성(安全性), 경제성(經濟性) 등이 문제가 된다.

약은 투약하기 간편하고 환자에게도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서 잘 수용(受容)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구충제이고 기후나 복용후 소화효소등에 의해 약효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안전한 약이 좋은 구충제가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구충할 필요가 있는 구충제의 경우 값비싼 것보다 값싼 것이 좋을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사용되어져온 간디스토마 치료제나 페디스토마 치료제들은 약효가 확실치 않거

나, 약효가 뚜렷하면 부작용이 심하여 사용에 문제점이 많았고, 수용성, 안전성, 경제성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집단치료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개인치료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 페디스토마 치료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성과는 만족할 만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디스토마 치료제의 발견에 무척 희망적인 사실이 생겼다. 즉 1977년을 전후하여 독일 Bayer社에서 조충류에 대한 치료제로 프라지퀀텔(Praziquantel)이란 약을 개발하였는데 이 약이 조충류 뿐만 아니라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주혈흡충, 요꼬가와흡충등 많은 종류의 흡충류에 대하여도 뛰어난 살충작용을 함이 밝혀진 것이다. 최근까지 간, 페디스토마 치료제로 쓰여오던 헤톨(Hetol), 비친(Bithinol), 니크로폴란(Niclofolan) 등은 약효는 있어도 부작용이 극심하여 인체사용이 금지되거나 극히 조심스럽게 투약해 왔는데, 프라지퀀텔은 조충류와 흡충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살충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지금까지의 어떤 약보다도 훨씬 뛰어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 동물실험을 통하여 毒性이 별로 없었다고 하며 인체에 대해서도 임상적 상용량으로 별다른 毒性이 야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 약에 관심

을 가지고 고려의대 林漢鐘 박사를 위시하여 여러 분들이 동물실험, 임상실험등을 통하여 간디스토마증과 페디스토마증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프라지퀀텔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으며 이 약의 살충기전 및 부작용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본 교실에서도 실험적으로 페디스토마를 감염시킨 고양이에 프라지퀀텔을 투여하였었는데 사람 상용량의 2배의 용량, 즉 50mg/kg을 1일 3회로 2일간 투여하였다가 다음날 고양이 부검시 살아있는 페디스토마 충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곤란을 겪고 프라지퀀텔의 살충효과에 놀랐던 경험이 있다.

필자는 그동안 기생충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디스토마 및 페디스토마가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막상 간, 페디스토마증 환자를 대하여 만족할만하게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을 자신 있게 추천하지 못해 왔음은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

이러한 때에 프라지퀀텔의 출현은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처럼 기생충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척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라지퀀텔의 단가가 높아서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집단치료에 사용되기에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여러사람의 끊임없는 노

## 시판사 2개사

### 부산지부에 표창장 부산시장, 보건의 날에

寄協부산직할시 지부는 지난 4월 7일 제11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직할시 최중호씨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표창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단체는 시정에 적극 호응하여 보건사업 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바 크므로 이에 표창함」

### 弘報要員化 교육

경기지부, 전직원에 실시



寄協 경기도지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부 전직원에게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인 자궁암, 당뇨병, 신장질환, 간장질환, 심장질환, 빈혈등에 관한 홍보요원화교육을 실시했다.

지부의 전직원이 국민계도 활동에서 홍보계몽 및 안내를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鄭검사소장을 비롯한 병리기사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력이 있는한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프라지퀀텔을 사용하여 집단 치료를 위한 감량요법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도 있고, 이 구충약의 국내생산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카톨릭 의대 기생충학 교실에서는 페디스토마증에 대한 진단의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에 검사하여 페디스토마증으로 진단된 남자환자도 진단이 내려진후

곧 병원에서 프라지퀀텔을 투여하였다 한다.

이제 간, 페디스토마 환자를 대하여 예전같은 망설임이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일이다.

〈필자= 카톨릭의대 기생충학교실〉

